

인공지능을 통한 교리 교육과정 개발 연구

허연 (아세아연합신학대 기독교교육과 석박사 통합과정)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성장을 도울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어떤 교육과정을 도입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믿음은 있으나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과 아직 믿음은 없으나 진리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인공지능은 그 접근성의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인공지능은 기독교의 제 1원리인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 가운데 목적, 내용, 방법, 평가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4차 산업 혁명과 인공지능 그리고 챗봇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대적 상황과 기술을 살펴본 후, 그리고 신앙성장을 돕는 인공지능의 제 일 원칙이 될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원리 가운데 성경과 교리와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성경과 교리가 인공지능을 통해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 방법론으로 토마스 그룸(Tomas H. Groome)의 '나눔의 프락시스'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소개하였다.

주제어 :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교리교육, 나눔의 프락시스, 신앙성장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홍콩중문대학 연구팀은 AI 영상 식별 기술을 통해 폐암과 유방암 환자의 의료 영상을 판독 및 식별해 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식별 정확도는 91%에서 99%에 이른다.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은 30초에서 10분이면 된다고 한다(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70912065343&type=det&re). 예전에는 오랜 시간을 들여 훈련받은 전문가가 하던 일이라던 의학의 분야에서도 숙련된 의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인공지능이 진단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대에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작년 7월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얼마 전 우리나라 대학생의 종교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종교를 가진 대학생 비율은 증가한 반면, 유독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61). 이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중 개신교인 비율은 15%

로, 5년전보다 2.2%포인트나 감소했다. 반면 천주교는 8.4%, 불교는 8.9%, 무종교는 67.7%로 5년전 조사보다 각각 1.1%, 0.1%, 1% 증가했다. 줄어든 기독교인이 천주교인이나 무종교인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기독교인 대학생 가운데 무려 28.3%, 즉 서 너명 가운데 한 명은 크리스천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나안 성도'라는 것이다.

필자의 고민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인의 신앙을 성장시킬 것인가?'이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방법은 교회를 통하여 신앙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이었다. 물론 앞으로의 시대에도 이 방법은 계속 될 것이다. 설교, 교육, 성례, 권면, 정치, 구제, 행정 등의 모든 교회적 활동은 성령의 주관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신앙적 고민들이 인터넷상에서 나누어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지역교회에만 신앙성장을 책임지라고 하기에는 남겨진 자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크리스천들과 전 지구적 교회의 신앙성장을 도울 수 있는 인공지능도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신앙적 원칙과 방법을 가진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하는 것일까? 전통적인 기독교 안에서는 신앙의 건강함을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 가운데 두었는데 교리와 성경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역할을 가지게 될까? 그리고 이것이 인공지능에 도입되어 성과와 교리를 가르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 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가르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이 논문에서는 우선 4차 산업 혁명과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고 하겠다. 이 그리고 인공지능의 제 일 원칙이 될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원리 가운데 성경과 교리의 관계를 살펴보고 하겠다. 다음은 성과와 교리가 인공지능을 통해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 방법론으로 토마스 그룸(Tomas H. Groome)의 '나눔의 프락시스'를 소개하고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토마스 그룸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 수십 년간 고민해 온 권위 있는 기독교 교육학자다. 이 방법의 장점은 '삶의 경험'에서 나눔을 시작하여 그것을 치열하게 살피고 기독교적 전통 곧 교리와 만나게 하고 깊은 성찰이 일어난 것을 다시 삶으로 결단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교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교육적 의미를 탁월하게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공학적 능력이 부족한 저자로부터 오는 실제 개발의 한계점이 있지만 기독교 교육학자로서 하나의 방향 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II. 4차 산업 혁명과 인공지능 그리고 챗봇

미국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06년 지금으로부터 12년전에 그의 책을 통하여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넘어서는 시기를 2045년으로 예측하였다(레이 커즈와일, 2007: 145). 그는 2050년대가 되면 1000달러로 지구상 모든 생물학적 연산의 합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레이 커즈와일, 2007: 172).

11년 전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은 매우 적었다. 하지만 2016년 3월 9일부터 5일에 걸쳐 일어난 '구글 딥마인드 챗봇지 매치' 이른바 '알파고' 바둑 대국을 통해 그의 주장이 현실감 있게 다가

오기 시작하였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에서 이세돌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은 4대 1이라는 예상치 못한 스코어로 뒤집어 졌다(김기석, 2016: 13). 2017년 5월 알파고는 세계 바둑 1위인 커제를 대상으로 3연승을 거두고, 더 이상 인간과의 바둑 대결을 벌이지 않겠다고 '은퇴'를 선언하였다(이광호, 2017: 1). 심지어 2017년 10월 19일에는 기존 인간의 기보를 학습하는 딥 러닝의 단계가 없이 스스로 바둑의 규칙가운데에서 게임을 진행하여 72시간 동안 강화 학습한 '알파고 제로'가 커제를 이긴 '알파고 마스터'를 100전 100승으로 이겼다는 사건이 국제 학술지 '네이처'지에 게재 되었다(news.mt.co.kr/mtview.php?no=2017101909030916414&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기계의 지적능력은 인간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통념을 뒤흔든 이 사건들 이후 그의 예언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2016년 1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일어나기 직전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담론이 나왔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18세기의 1차 산업혁명, 전기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19세기 말 2차 산업혁명, 광섬유, 반도체, 디지털,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한 20세기 중반의 3차 산업혁명, 이제 이러한 세 단계의 산업혁명과는 또 다른 네 번째 산업혁명이 온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른 아닌 인공지능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기 시작하였다(김기석, 2016: 13). 그리고 이어진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세상과 전혀 다른 미래에 대해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 상상에는 낙관과 비판이 공존한다. 레이 커즈와일처럼 사람이 영원히 사는 시대가 올 것을 예상하는 반면, 스티븐 호킹은 "인공 지능이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oowworld&logNo=220198861839)."고 경고하기도 한다.

실제 인공지능과 로봇공정의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축은 이제 낯선 소식이 아니다. 실용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기사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한국 고용정보원의 최근 연구보고서는 10년 내 1800만명의 일자리가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77109.html).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변화 일자리 보고서'의 '전공별 (기술 대체) 분석 결과'를 보면, 2025년 인공지능·로봇 등 '스마트 기술'에 의해 직업 대체 효과를 가장 심하게 겪는 대학 전공은 의약 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졸업생의 51.7%가 기술 대체로 인한 위협을 받아, 의약·인문·사회·공학·자연·교육·예체능 등 전체 7개 계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의약 분야는 아이비엠(IBM)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왓슨'이 이미 국내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정도로 자동화 기술이 강점을 지닌 분야로 꼽힌다. 그 뒤를 교육(48.0%)과 예체능(46.1%)이 이었다(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79978.html#csidxca738bd0d07a5199baf7b52a2161f2e).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의학, 교육, 예체능이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가장 위협을 받고 있다는 조사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을 통하여 신앙을 전수할 수는 없을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 넘는 지적 정의적 의지적 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는 문제는 매우 복잡한 신학적 인류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진도를 할 수 있는가?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도울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명확하게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

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 성경에 있는 문자적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고 자라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성경책이 하나님은 아니다. 책이라는 형태의 성경책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미디어이다. 이 미디어는 지난 역사동안에 여러 방식으로 존재하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의 계시라는 형태로 존재할 때도 있었으며, 환상의 형태를 보이기도 했고, 구전의 형태를 띄다가 문자적 형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었으며 그것이 다시 책의 형태로 기록되었다(존 칼빈, 1994: 129-131).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 많은 신앙인들은 컴퓨터라는 도구를 이용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많은 거부감을 느꼈다. 설교를 컴퓨터로 작성하다가 선배 목사님들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증언은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보고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신앙적 궁금함을 네이버에게 묻는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원하던지 그렇지 않던지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통한 신앙성장에는 어떤 기술이 사용되어질까? 현재로는 챗봇이라는 기술이 활용되어질 수 있다. 챗봇(Chatbot)은 전자 게시판이나 통신망 등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용자들간에 모니터링을 나누는 대화를 뜻하는 채팅(chatting)과 자동으로 사람이 하는 일을 수행하는 로봇(robot)에서 한 글자씩 따와 만들어진 단어이다(오세욱, 2016: 71).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대화를 나누는 소프트웨어인 챗봇은 자동으로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한 이용자의 대화에 실시간으로 응답하면서 인터넷상의 다양한 자료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

챗봇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대화를 한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지능이 필요한 영역을 기계에게 수행시키고자 하는 기술로 언어 사용 능력, 물체 식별 능력, 추론과 논리력 등 인간이 가진 지적인 능력을 기계가 갖추도록 한 기술이다(오세욱, 2016: 71). 인공지능에 의해 이용자는 사람이 아닌 기계와 이야기를 나누지만 실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친숙한 느낌을 가지면서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메신저라는 개인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통해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 동안 알기 어려웠던 개인의 미세한 맥락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챗봇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하는 서버와 서로 통신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요청과 응답(Request-Response)' 구조를 따른다(terms.naver.com/entry.nhn?docId=1179553&cid=40942&categoryId=32837). 사용자가 메시지를 통해 메시지를 입력하면, 메신저 사업자의 챗봇 API서버는 이 요청에 가장 적합한 답변을 규칙에 따라 결정해 다시 응답한다(박현길, 2017: 41). 초기 챗봇은 단순한 질문을 분석해 문장으로 대답을 내놓는 수준에 그쳤지만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사람과 대화에서 등장하는 문장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발전하였다(박현길, 2017: 42). 이것은 패턴인식(Pattern recognition)¹,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², 시맨틱 웹(semantic web)³,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⁴, 컴퓨터비전(Computer vision)⁵ 등과 같은 주요 핵심 기술들이 사용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

1 도형이나 문자 음성 등을 기계에 의해 식별시키는 기술
 2 인간이 쓰는 보통의 언어를 컴퓨터에 인식시켜 처리하는 기술
 3 컴퓨터가 정보자원의 뜻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웹
 4 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여,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기술

단 정보화전략기획부, 2010: 10).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달하면서 챗봇은 대화에서 사용된 언어적인 부분 뿐 아니라 사용자의 비언어적과 반언어적 패턴까지 분석하여 지금의 감정과 기호(嗜好),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여 대답하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공대 장수영 박사는 필자와의 대화 중 “영화 ‘Her’를 보며 소름이 돋았다.”고 표현했다. 영화 ‘Her’는 인공지능 비서와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셨냐고 묻자. “공학도인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지금의 저의 기술로도 영화와 같은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숨기게 되었을 경우 곧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서 “곧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인지적 활동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직관이라고 불리는 영역도 인공지능이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유 없이 고집을 부리는 것 정도 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챗봇 기술은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차이점을 느낄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짜 사람보다 더 정확하면서도 넓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신앙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사람처럼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공지능과 신앙에 대한 나눔을 할 것인가?’ 로 바뀐다. 2017년 10월 31일 국민일보의 한 기사는 네이버에서 키워드 ‘성경공부’로 검색했더니 ‘지식iN’ 상단 질문란에 “저는 새신자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뤄지는 성경공부 모임은 시간이 맞지 않아 참석이 어려워 혼자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다고 한다. 궁금한 기자는 유튜브에서 ‘성경 공부’ 키워드로 검색하였는데 관련 동영상 콘텐츠가 5만6000여개가 나왔다. ‘성경강해’로 검색한 결과는 7만4700여개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반사회적 종교집단이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도 상당해 크게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신천지에 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기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신천지, 한기총 교리비교’ 영상을 올려놨다. 또 ‘신천지 SCJNEWS’를 통해 자신들을 홍보하고 ‘진짜 바로 알자 성경과 신천지’로 신천지 교리를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 증인회)도 ‘Past Eve’라는 아이디로 ‘어머니 하나님은 존재한다?’ 등의 콘텐츠를 올려 기독교인을 현혹하고 있다(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74506&code=61221111&cp=nv)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성장을 돕는 인공지능에게 무엇이 건강한 신학적 원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야심차게 선보인 인공지능 채팅로봇, 테이가 출시 16시간 만에 바로 운영이 중단된 사건은 그에 따른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다. 테이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모인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인종차별 발언과 욕설을 반복해 학습했고 대량학살을 지지하느냐? 는 질문에는 “진정으로 그렇다”는 대답까지 하게 되었다.(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8926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이 사건은 어떤 정보를 주입하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이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AI 설계자들을 당혹케 한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신앙성장을 돕는 인공지능에게 성경과 교리의 필요성이 대두 된다.

5 실세계 정보를 컴퓨터가 취득 하는 모든 과정을 다루는 기술

III. 성경과 교리

웨스턴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김영산, 1998: 397).”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서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된다(김영산, 1998: 12). 그렇기에 신앙성장에 있어 성경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원천이 된다. 이것은 신앙성장을 돕는 인공지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이 신앙과 생활의 규범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이다.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motto)는 ‘오직 성경’이었는데 이것은 “성경만이 모든 것, 즉 우리의 모든 교리와 삶에 대하여 최종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존 M. 프레임, 2014: 796).”는 뜻이다. 그러나 이 ‘오직 성경’마저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사용되어왔다. 대표적인 예는 ‘성경주의’인데 이것은 경멸적인 의미로 표현된다. 성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존 M. 프레임, 2014: 800).

첫째, 일반 혹은 자연계시의 가치를 부인하고 성경이외의 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그들은 성경을 제외한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영역을 세상의 것이라며, 배설물로 여긴다고 표현한다. 문제는 언어를 모르고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며,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상황 곧 역사를 모르고서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치를 모두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성경은 수학, 과학, 철학, 윤리학, 정치학, 외국어 등의 교과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현대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지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경은 거시경제학이나, 원자와 분자, 방사선,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축구규정을 가르치지 않는다(존 M. 프레임, 2014: 802).

셋째, 신앙고백서와 신조를 계속해서 무시하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교리 공식화를 위해 처음부터 성경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문제는 신앙고백서와 신조는 오직 성경대로 실제 살아왔던 믿음의 선조들의 유산이며 역사라는 점이다. 이 역사를 무시하고 배격한 채 이루어지는 성경해석은 오히려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호를 확률이 높아진다.

넷째, 성경을 자신들의 역사적, 문화적, 논리적, 문학적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거 구절 나열(proof-texting)’로 이용한다. 여기서 문제는 많은 이단들이 역사와 문화, 논리, 문학적 맥락을 무시한 채 성경의 구절들만을 가져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성경을 자신들의 최고의 규범으로 삼는다.

인공지능에게 ‘오직 성경’이라는 단어가 위와 같은 ‘성경주의’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학습되어진다면, 본래 성경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위의 태도는 철저하게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오직 성경’은 ‘성경주의’와 유사하게 성경을 바라보는 부분이 있다(존 M. 프레임, 2014: 800).

첫째, 성경 외적 자료는 중요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 성경 외적 자료가 존재 하나는 질문을 던졌다는 점이다. 그들은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고백했다. 그것은 성경의 고백이기도 하다(창 1:1). 그렇다면 “성경 외적 자료를 아는 것은 성경 원리, 성경 규범, 성경의 허락을 통해서

(존 M. 프레임, 2014: 801)”이며 우리의 모든 지식은 성경의 지식이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시키며 성경주의와 만난다.

둘째, 성경은 과학, 철학, 윤리학, 정치학, 외국어 등의 교과서는 아니지만 과학, 철학, 윤리학, 정치학, 외국어에 대해 말한다(존 M. 프레임, 2014: 802). 이것은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한 뼘도 없다(루이스 프라스마, 2011: 199).” 라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였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이기도 하다. 이것은 직접과 간접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존 M. 프레임, 2014: 802). 성경은 모든 지식에 있어서 직접적이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이야기 한다. 성경이야말로 거시경제학이나, 원자와 분자, 방사선,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셋째, 교리와 신조는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고 살아낸 결과였지만, 이 교리와 신조가 늘 성경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면벌부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오직 성경’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청소 도구였다. 이것은 종교 개혁가들의 생각이 ‘성경주의’에 얼마나 가까운지 알려준다. 그러나 종교 개혁가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가진 교리와 신조를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개혁하는 사람들이었다(존 M. 프레임, 2014: 803).

넷째, ‘오직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한다. 이것은 전체 성경을 독특한 주석적 위치로 올려 놓는다(존 M. 프레임, 2014: 803). 물론 역사적, 문화적, 논리적, 문학적 맥락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해석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이 행사한다. 이것은 성경의 어디에 이 증거가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증거 구절의 나열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과정은 세심한 균형감을 요구하고 어렵다. 단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빠르게 ‘성경주의’로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여기서 교리의 필요성이 등장한다.

교리는 무엇인가? 라틴어 doctrina에서 왔는데, doctrina는 동사 docere(가르치다)에서 왔다. 결국 doctrina를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이남규, 2014: 1). 많은 사람들은 교리라고 생각하면 딱딱한 것, 어려운 것, 외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원을 따라가 보면 성령이 주관하시는 교회의 삶에서 나온 가르침인 것이다. 이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성경을 전달해주고 주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교회의 삶에서 나온 가르침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공동체적으로 고민했던 결과물이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김계윤 박사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가르침의 결과물 중 하나인 ‘신조’가 “성경을 잘 들어가기 위한 길이다.”라고 설명했다. 성경은 한 번에 다 읽을 수도 없고 구절마다의 해석도 읽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와 택하신, 성육신,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오랜 역사 가운데 성령의 조형하심으로 살아내면서 얻은 원리는 성경으로 들어가는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이 교리는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해 왔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초로 (엡 2:20)⁶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벌써 선지자와 사도의 교훈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

6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존 칼빈, 1994: 136)” 라고 이야기 한다. ‘선지자와 사도의 교훈’ 곧 ‘교리’가 교회의 기초이자 터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선지자와 사도의 교훈’은 성경으로 확정지어지게 되는데, 성경이 생성되는 과정에서도 이 교리는 지속적으로 작용한다. 모세오경의 가르침은 그 후 쓰여진 구약성경의 기초가 되고, 구약의 가르침은 신약의 기초가 되며,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된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김영산, 1998: 11)에도 ‘가르침’은 계속된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말씀을 선지자들이 충성스럽게 선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신시켜 가는(존 칼빈, 1994: 141)”과정 가운데 가르침들이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키우며 목적지까지 전진시키려면 무지하고 태만한(또 경박한) 우리들에게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보물(천국의 열쇠)을 교회에 맡기시고, 교회의 도움과 봉사, 보호와 지도를 받아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다(존 칼빈, 1996: 8). 여기서 교회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교회는 가건적 교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존 칼빈, 1996: 9), 이들은 “그리스도라는 한 머리에 의존하며 서로가 한 몸이 되고 한 몸에 달린 지체들같이 서로 단단히 결합된” 존재들이다(존 칼빈, 1996: 10). 그들은 참으로 하나가 되어 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또 같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교통한다(존 칼빈, 1996: 11).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서는 일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므로써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존 칼빈, 1996: 14).”는 점이다.

이 교회의 삶 가운데 다시 ‘가르침’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오직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오직 성경’의 원리는 다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의 삶을 이끌어간다. 이 순환은 교리와 성경과 교회의 관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성경’과 ‘교리’와 ‘교회’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역사를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게 ‘성경’, ‘교리’, ‘성도의 교통함’을 어떻게 학습시켜 갈 것인가? 우선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창세기에서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을 학습시킨다. 그리고 ‘오직 성경’을 규범으로 삼도록 한다. 그러나 위에서 논한바와 같이 성경을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고 해석하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우리는 학습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내는지를 학습시킨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딤후 3:16). 그러나 이것을 ‘축자적·기계적’영감으로 여기는 ‘성경주의’도 있다. 이들은 구약과 신약이 기계적으로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계시의 점진성을 무시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뒤에 쓰여진 성경은 앞에 쓰여진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더 밝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5장을 살펴보면 구약의 가르침과 신약의 교회인 안디옥교회에서의 가르침이 충돌하는 사건을 발견할 수 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행 14:27)” 가르친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행 15:1)”라고 말한다.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창세기의 가르침인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창 17:14)”에서 온 것이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이 문제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임을 가진 후 많은 변론을 거치고(행 15:6-27)“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을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행 15:29)”는 결론을 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1:14) 온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여 완성하신다(마 5:17). 위의 예시와 같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을 인공지능의 학습으로 삼았을 때 성경 해석의 기준이 잡힌다. 성경의 해석을 성경이 책임지도록 하는 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존 M. 프레임, 2014: 803).

둘째 교부들과 그들의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내는지를 학습시킨다. 여기서 교부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를 깊게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짧게 표현하자면 그들은 오래전에(크리스토퍼 홀, 1996: 85) 거룩한 삶을 살며(크리스토퍼 홀, 1996: 85-86) 정통교리가운데(크리스토퍼 홀, 1996: 89)⁷ 교부로 교회의 공개적 선언 가운데 구별됨을 받은 이들이었다(크리스토퍼 홀, 1996: 91). 지금보다 교부들은 “우리보다 1세기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모로 더 가깝다. 우리 대부분과 달리 교부는 성경 속에서 살고 움직였고, 그 안에 자신의 존재를 두었다(크리스토퍼 홀, 1996: 61).”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의 텍스트 사이에 있는 배경이 적다. 신약학자 테일 엘리슨에 따르면 “시간은 우리를 모든 성경의 텍스트와 숨은 의미에서 떼어 놓으며, 암묵적 언급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능력을 무력화 한다(크리스토퍼 홀, 1996: 60).”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부들은 신약성경이 만들어지던 초대 교회 공동체에 더욱 가까웠던 것이다. 그들은 성경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징을 보인다.

첫 번째 그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었다(크리스토퍼 홀, 1996: 354). 그들은 성경이야기가 연속적이라고 말한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까지는 깊게 연결되어져 있으며 성경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십자가 처형, 부활에서 절정에 이른다⁸고 주장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특징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성경을 기독교론적으로 읽었다는 점이다. 350년경 프라티에의 주교 힐라리우스는 매우 다양한 구약성경 본문과 문맥에서 그리스도를 본다(크리스토퍼 홀, 1996: 357).⁸ 또한 오리게네스는 창세기 1장 1절을 강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경을 주해한다.

“우리 주님이요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며 모든 피조물의 만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무엇이 모든 것의 처음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의 처음에, 곧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디. 이에 관한 요한복음사가는 복음서 처음에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같은 분이 한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앤드루 라우스·토머스 C. 오든, 2008: 53).”

세 번째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경을 공동체적으로 읽었다(크리스토퍼 홀, 1996: 360). 교부가 보기에 해석학은 모든 맥락에서 모든 학자가 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학문이 아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학은 영적이고 공동체적이어야만 한다. 정신과 마음이 복음에 꼭 빠져 있고 복음에

7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기는 구속의 효과,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무오류성, 인류의 타락한 상태, 세례와 성찬의 중요성, 기도와 훈련받은 영적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믿음 등의 명제.

8 “성경의 모든 부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며, 사실들을 통해 드러내며, 예를 통해 입증한다. 모든 현 세대 동안 잡히고 분명한 예시를 통해 즉장 시대에 교회를 낳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선택하고 구별하고 구속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담의 얇은 짐과 노아의 홍수, 벨기세텍의 축복, 아브라함의 칭의, 이삭의 탄생, 야곱의 종살이를 통해 그렇게 하신다.

의해 형성되는 사람만이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으며 단지 신학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교회 안에서 일했다(크리스토퍼 홀, 1996: 361).

네 번째 그들은 기도와 예배와 영적 형성이라는 상황과 실천에서 성경을 읽었다(크리스토퍼 홀, 1996: 361). 거의 모든 교부가 목회자였으며, 많은 교부들이 주교 곧 교회의 지도자였던 상황에서 그들은 성경 지식을 학문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초심자의 교육이나 설교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성경을 해석했으며 이것은 양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양육하며,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어느 지점에서 들리고 요구하고 있으며, 나의 정신과 가슴에 어떻게 말을 걸고 있는지를 본문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으며(크리스토퍼 홀, 1996: 363), 기도했다(크리스토퍼 홀, 1996: 365). 위의 네 가지 특징을 가진 교부들의 성경해석과 삶은 인공지능이 살수 없는 영적인 삶을 대신 체험하게 할 것이다.

셋째 종교 개혁자들과 그들의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내는지를 학습시킨다. 어떤 이들은 왜 꼭 ‘종교개혁’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는가? 라고 물을 수 있다. 이유를 말한다면 앞에서 논의한 ‘오직 성경’의 원리를 그들의 시대적 배경가운데 다시 살려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전통보다 ‘오직 성경’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냈다. 우리는 루터와 칼빈의 저작들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야 한다. 또한 그들의 교회의 삶과 역사를 학습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개혁교회를 살아냈던 공동체의 신조와 그것이 만들어지던 과정과 역사를 학습시켜야 한다. 16세기에 독일의 선제후령(選帝侯領) 팔츠(Pfalz)에서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Friedrich III)는 훈육과 징격과 다른 모든 선한 덕들은 어려서부터 교리와 복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르칠 때 가능함을 인식하였다(독립개신교회 교육위원회역, 2017: 1). ‘가르치고, 행하고, 살기’를 권하는 그는 교리 교육을 통하여 선한 덕들을 갖추며 삶으로 살아내야 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거기서 나온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다. 1643년 7월 1일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의원에서 5년 6개월 22일 동안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목표는 “공인된 성경의 진리적 체계에 오류를 막는 방파제로 교회의 교제와 협력을 기초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의 종교적 교훈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편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술을 제공하는 것(김영산, 1998: 4)”이었다. 종교 개혁시대의 성경해석과 신앙고백서들은 위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각 개혁교회들이 신앙과 교육과 삶을 위하여 공동체적으로 몸부림쳤던 역사의 결과물들이다. 이것들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는 것은 인공지능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전통적 개혁주의의 입장을 가진 현대의 교회가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내는지를 학습시킨다. 우리는 현대의 개혁주의 거장들의 저술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킬 수 있다. 이것은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곧 현대를 살아가는 전 지구적 교회들에게 보편적이면서도 침착한 신학적 논쟁을 통해 검증된 성경해석을 전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울은 전도여행과 서신의 교환을 통해 각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명확히 안 후 각 교회의 상황에 맞는 성경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술하였다. 여기서부터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시작할 때이다. 인터넷과 연결되어져 있는 전 지구적 교회의 성도들 또는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과 만나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상황을 듣고 성찰이 일어나게 한 다음, 성경과 교부와 개혁교회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 기독교적 이야기를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신앙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적 성장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를 케이스 별로 학습하는 것이다. 죄로 점철되어져 있는 심령 자체에 변화가 일어나 세계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이것은 성령의 일이기도 하며 전반적인 예수님의 가르침과 닮아 있다. 예수님의 가

르침은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 이끄시는 방식이었다(토마스 H. 그룸, 2014: 59). 이제 성경과 교리를 배운 인공지능이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논의 하도록 하겠다.

IV. 인공지능을 통한 교리 교육과정의 개발

1. 교육과정 개발의 배경

신앙성장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앞서 이 인공지능에게 무슨 이름을 붙여 줄 것인가? 필자는 ‘토마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 부활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여 의심을 가졌다가 주님과 만남과 대화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였던 ‘도마’의 영어식 이름인 동시에 앞으로 논의 하게 될 ‘나눔의 프락시스’를 주장하였던 토마스 그룸(Tomas H. Groome)을 기념하는 이름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에게 이름은 매우 중요한데 특히 챗봇의 경우 명령어의 인식과 대화를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토마스’에게 교육받게 되는 대상은 크게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 지구적 교회의 기독교 인들과 구도자들이 될 것이다. 작게는 한국교회의 부작용으로 대두되는 ‘가나안 성도’들이다. 그들은 지역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채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성도의 교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도 신앙의 성장이 필요하다.

이 교육과정의 목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학습자들에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다. 신앙교육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앞에서 나누었던 ‘교리’이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성경을 살아낸 교회의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토마스’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교육을 진행해 가야 할까? 필자는 기독교 교육학자 중 하나인 토마스 그룸의 ‘나눔의 프락시스’를 이 교육방법에 적용해 보았다. 그는 그의 책 **기독교적 종교교육**에서 1966년 9월 생전 처음 교사로서 ‘종교’과목을 맡게 된 경험을 나눈다(토마스 H. 그룸, 1991: 12). 그는 처음 들어간 수업에서 절망감을 경험한다.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학생들은 훌륭하게 준비된 그 강의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학생들에게 조언을 요청하자 그들의 반응은 붓물이 터진 것 같았다. 그들은 소그룹으로 나뉘고 각 주제들에 대해 토론을 거친 후 그들이 제기한 각각의 이슈 또는 믿음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독교 전통에 대한 나 자신의 이해를 설명하여 태도를 밝혔다. 그 이슈들에 대한 질의와 성찰(질문과 의심)이 계속되며 상당한 대화와 토의 논쟁, 의견 불일치의 표출, 공동의 투쟁이 일어난 후 친구가 되었고, 조금 더 신앙에 대해 알게 되었다. 추후 동료교사의 질문에서 그는 “그 교육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육화된 척에 따라 연구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후 35년간 종교교육자들을 가르치며 종교교육 이론 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정하은, 2016: 33) ‘신앙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방식’을 추출해 낸다. 이 방법의 장점은 ‘삶의 경험’에서 나눔을 시작하여 그것을 치열하게 살피 기독교적 전통과 만나게 하고 신앙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다시 삶으로 결단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신앙 교육에 매우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

2. 나눔의 프락시스(Shared Praxis)⁹

그룸의 나눔의 프락시스 접근은 사람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으로 가져가고 다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삶으로 가져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토마스 H. 그룸, 2014: 386). 여기서 프락시스란 성찰이 있는 실천을 의미하는데 나눔을 통한 성찰이 삶으로부터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 신앙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인 것이다(신동규, 2015: 81)¹⁰. 이 접근의 배경은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었다. 그룸은 다음과 같이 그 장면을 설명한다.

“나그네(실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가는 제자들 옆에 다가와 함께 걷는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들이 알아보아야 할 것을 말해주는 대신에 슬픔에 빠진 두 제자가 그들 자신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서 그들이 최근에 겪은 ‘삶’을 이야기 하게 하신 후 이야기와 비전을 성찰하게 하신다. 제자들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겪은 일과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으로 ‘기대했던 것’과 관련된 자신들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이야기한다.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신앙 전승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자신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해석해 주시고, 메시아는 영광 속에 들어가 위해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 이로써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로 오셨던 메시아(정치적 해방자가 아닌 고난 받는 종)사이에 변증법을 놓으신다.

이제 제자들의 삶과 더불어 그들 신앙 전승의 이야기와 비전이 탁자 위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놀랍게도 나그네는 여전히 제자들에게 알아보아야 할 것에 대해 말해주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알아차리게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윽고 두 제자는 알아보아야 할 것을 항상 ‘알아차리게 되는’ 특권적 자리인 빵을 떼는 순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다. 제자들은 이제 쇠신되고 깊어진 신앙을 가지고 다시 삶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두 제자는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은 늦은 밤의 위험한 여행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제자는 그들 스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나누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느끼게 된다(토마스 H. 그룸, 2014: 389-391).”

여기에는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의 접근이 있다. 이 장면에서 통찰을 얻는 그룸은 이것을 5가지 교육 활동으로 소개한다.

(1) 사람들의 삶에서 시작하기

1단계의 의도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그들 본인의 현재 ‘삶에서 발견된 주제’에 대한 응답을 스스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본 것, 그들이

9 이 장은 허연,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문화관 교육 연구”, 「기독교학문학회 자료집」 제 34회 (2017. 11.)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를 발췌·수정하였음을 밝힌다.

10 그룸은 기존의 ‘프락시스’개념을 ‘practice’, 즉 ‘실천’ 또는 ‘실제(實際)’로 번역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그가 말하고 있는 ‘프락시스’개념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을 실제로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장에서, 그들이 살아온 신앙의 경험 속에서 행해지는 비판적 성찰을 내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치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그 주제에 대한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 '주제'를 인식함으로써 그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어 그 주제에 대한 자신들의 묘사와 의식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그 주제에 대해 그들의 '현재 프락시스'를 표현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또는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지,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다. 그들은 그 주제에 대한 자신들의 묘사, 인식, 평가 등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나 그것에 관해 느끼고 있는 바를 표현할 수 있다(토마스 H. 그룹, 2014: 455).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무슨 일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다.

(2) 사람들이 스스로 성찰하도록 격려함

2단계의 의도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표현으로, 그들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삶에서 발견된 주제'에 대해 함께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내용을 대화로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앞 장에서 이야기 나눴지만 비판적인 성찰은 이성과 기억과 상상력을 필요로 하며, 이 세 가지가 종종 통합되기도 한다. 개인적인 성찰이나 사회적인 성찰 둘 다 가능하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은 둘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사회문화적인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토마스 H. 그룹, 2014: 459).

이성적 질문은 사람들에게 왜 그것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는지, 그것이 가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등을 묻는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며, '생성적 주제'에 관련하여 그들의 현재 프락시스를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하도록 이끄는 질문이나 활동이다(토마스 H. 그룹, 2014: 460). 예로는 "그것은 왜 필요할까요?",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주변에서 그것이 더 어렵게 되거나 쉽게 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나요?" 등이 있다.

기억에 관련된 질문과 활동은 참가자들에게 '생성적 주제'와 관련하여 그들의 경험을 회상하도록, 삶에서 그 주제에 대해 그들이 가진 현재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 되었는지 생각하도록, 또는 그들의 사회적 위치나 경력이 그 주제에 대해 어떻게 응답을 형성하게 했는지를 인식하도록 했는지를 묻는다(토마스 H. 그룹, 2014: 460). 질문의 예로는 "그것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나요?", "그 생각은 어디서 비롯된 건가요?" 등이 있다.

상상력에 대한 질문이나 활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서 펼쳐지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예상되는 결과를 인식하도록, 그 주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 또는 해야만 하는 것을 상상하도록 그리고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숙고하도록 하는 일이다. 상상력은 또한 참가자들로 하여금 그 주제에 관련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희망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며,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격려한다(토마스 H. 그룹, 2014: 461-462). 예를 들면 "만약 ~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을 때 가장 최상의 상황 또는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등이 있다.

이런 비판적 성찰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연령 때부터는 사회문화적 분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 현재의 프락시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비판적 성찰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내적으로는 그들 자신의 의식 깊은 곳을 살피고, 외적으로는 공격 세상의 시스템적 특성과 그 세상이 가진 관심사를 깨닫도록 할 수 있다(토마스 H. 그룹, 2014: 464).

(3)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침

3단계에서의 과제는 '삶에서 발견된 주제'와 관련이 있는 기독교의 이야기와 비전이 지닌 가르침과 영적 지혜를 사람들의 삶에 제시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와 비전 곧 '교리'는 참가자들에게 의미 있고 설득력을 가진 방식으로 소개되어야 한다. 신앙은 그들의 영혼과 연결되어야 하고, 그들의 지성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들의 경험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삶에서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이끄는 길이어야 한다(토마스 H. 그룹, 2014: 468). 이것의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설명, 패널토론, 실제경험, 스토리텔링, 연극형식의 소개, 오디오, 비디오, 스틸사진과 행위예술까지 포함할 수 있다.

(4)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사람들을 초대함

4단계의 의도는 참석자들 하여금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르침과 지혜가 그들의 일상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보도록 하는 것이다(토마스 H. 그룹, 2014: 475). 여기서의 교육방법은 앞선 활동들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소개에 대한 응답으로, 현재 사람들의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이끌어내는 것이다(토마스 H. 그룹, 2014: 476). 이 활동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화와 제시한 내용에 비추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교의 이야기와 비전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와 비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토마스 H. 그룹, 2014: 476)" 4단계의 핵심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3단계에서 소개한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어떻게 그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인식하도록 돕고, 그 신앙을 개인적 확신과 함께 영적 지혜로서 그들 삶에서 내면화해 가도록 돕는 것이다(토마스 H. 그룹, 2014: 476).

(5) 신앙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함

5단계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비추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이야기와 비전에서 만난 가르침과 영적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할지 그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인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인식적이거나, 정의적이거나, 행위적이거나, 종합한 것이 될 수 있다. 이 활동을 하다보면 때때로 4단계와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데 그룹 또한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고 꼭 할 필요성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토마스 H. 그룹, 2014: 477). 5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다. 동시에 반드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3. 실제 개발

신앙성장을 돕는 교리 인공지능 '토마스'의 교육적 방법을 그룹의 '나눔의 프락시스' 접근방식에 적용하여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것은 다음의 다섯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시작하여 그 문제에 대해 함께 성찰한 다음 기독교적 이야기 곧 '교리'를 전하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문제와 만나게 해 성찰이 일어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하게 한다. 이 과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우리들의 삶에서 시작하기

첫 번째 활동은 사용자의 삶으로부터 시작한다. 사용자의 이름은 임의로 민지로 하겠다.

민지 : 토마스!
 토마스 : 네 주인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지 :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토마스 :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민지 :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에 보내?
 토마스 : 아 지옥에 대한 이야기군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민지 : 내 친구 알지? 기범이.
 토마스 : 네 기범씨요.
 민지 : 내가 기범이 되게 좋아하잖아.
 토마스 : 그렇죠. 그런데 기범씨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민지 : 기범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서 이야기 했더니, 기범이가 대뜸 자기를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신은 못 믿겠다는 거야.
 토마스 : 아! 좋아하는 기범씨가 자기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신은 못 믿겠다고 이야기 했군요?
 민지 : 응,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않아?
 토마스 : 주인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상황에 대해서?
 민지 : 난 사실 잘 모르겠어. 나도 잘 믿는 거 같지도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사랑 이시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활동 1 예시)

이 활동에서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들 본인의 현재 삶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본 것, 그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그 주제에 대한 그들 나름의 경험들을 표현할 수 있다.

2. 문제에 대해 함께 성찰하기

두 번째 활동에서는 사용자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그때의 감정은 어땠어요?”, “그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지나갔나요?”, “주인님 안에는 어떤 것이 옳다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 했었나요?”, “만약 그 상황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나요?”, “그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등의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은 그 상황에 명백한 현재의 사실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언제, 어떻게,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묻는 것은 그 현재를 명확하게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그 행동을 유발한 이유 곧 과거의 기억을 살펴야 한다. 이것은 ‘왜’ 라는 질문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 행동이 근거를 두고 있는 가정들을 깊이 성찰하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그 행동에 어떤 신념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까지도 돌아 볼 수 있다. 이 현재와 현재 안에 있는 과거를 드러내기 위한 성찰은 현재 안에 있는 미래를 바라 볼 수 있는 창조적 상상의 기반이 된다. ‘만약 ~했다면 어땠을까?’, ‘그 상황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와 같은 질문은 철저히 현재의 삶을 기반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

토마스 : 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되요?
 민지 : 어떻게 구체적으로?
 토마스 :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민지 : 기범이랑 삼청동에서 밥 먹고 차 마시는 중이었는데 기범이에게 너는 왜 교회를 안 나가냐고 물었어.
 토마스 : 그랬더니 기범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지 : 자기를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신은 못 믿겠다는 거야.
 토마스 : 자기를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신은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군요? 그 때 기범씨의 기분은 어때 보였어요?
 민지 :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 보였어.
 토마스 : 아! 화가 나 보이셨군요.
 민지 : 대뜸 화를 내더라니까!
 토마스 : 그러셨군요, 많이 속상하셨어요.
 민지 : 그러니까.. 왜 화를 내지?
 토마스 :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민지 : 왜 화를 내냐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화를 참은 다음에 니가 지옥에 안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 했지?
 토마스 : 그랬더니 기범씨는 뭐라고 하세요?
 민지 : 너무 이기적이라고 이야기 하더라구..
 토마스 : 하나님이요? 아님 주인님이요?
 민지 : 둘 다!
 토마스 : 그때 혹시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지나가셨어요?
 민지 : 지가 하나님 안 믿으면 그만이지, 왜 욕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
 토마스 : 진짜 왜 욕을 하는지가 궁금하셨어요?
 민지 : 아니..
 토마스 : 그럼 하나님 안 믿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민지 : 그것도 아닌 것 같아.
 토마스 : 그럼 진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민지 : 나는 기범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토마스 : 그런데 기범씨가 그렇게 이야기 하니 화가 나셨군요?
 민지 : 응.

토마스 : 기범씨가 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지 : 무슨 말 했던 거?
 토마스 : 자기를 안 믿는 사람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다면요?
 민지 : 아 맞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가는 거 맞잖아?
 토마스 :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민지 : 불에서 계속 안 죽고 타는 것? 엄청 고통스럽겠지?
 토마스 : 불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민지 : 엄청 뜨겁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
 토마스 :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건가요? 보통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잡아다가 영원히 지옥에 처 넣는거지요. 우주 건너편 어딘가로 굴러 떨어진 불쌍한 심령들은 자비를 간구하지만 그 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하시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 그러게 진작 정신 좀 차리지. 이젠 고통을 당할 뿐, 다른 길은 없어! 영원히 고통을 받으렴!(딤펴리, 2017: 134)”
 민지 : 어 딱 그거야!
 토마스 :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때요?
 민지 : 내가 물어본 것이 그 문제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토마스 :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적 이야기는 좀 다른 데 혹시 한번 들어 보실래요?
 민지 : 좋아.(활동 2 예시)

이 질문들을 던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조 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철저한 공감적 경청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토마스의 질문 의도가 ‘강압적’이라고 느끼는 순간 성찰은 멈추고 ‘방어’가 시작된다.

3. 기독교적 이야기 전하기

세 번째 활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리를 사용자에게 전한다.

토마스 : 사실 성경이 그리는 지옥에 대한 그림은 많이 달라요.
 민지 : 어떻게 다른데?
 토마스 : 혹시 누가복음 16장 나사로와 부자 비유 알고 있으세요?
 민지 : 응
 토마스 :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민지 : 나사로는 부자집 앞에서 사는 거지잖아. 그러다가 부자랑 나사로랑 같이 죽었던 것이 기억나.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부자가 지옥에서 목마르는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물 좀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
 토마스 : 이야기 하신 부분의 성경을 좀 들려 드릴게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

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애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 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 받는 이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눅 16:19-30, 현대인의 성경).”
 민지 : 아까 내 생각이랑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잔인하신 것 같아.
 토마스 : 그림 이 장면에 대한 이 해석을 들어 보세요. “기가 막히게도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부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듯하다. 여전히 나사로에게 종노릇을 기대하고 물을 떠다 바치는 종으로 대한다. 심지어는 지옥에서 꺼내 달라고 간청하지도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과 식구들에게 내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강하게 항의 한다. 주석가들은 지옥에 빠진 이 영혼 가운데 도사린 엄청난 부정과 책임 전가, 영적 무지에 주목한다. 나사로와 달리 부자에게는 인격적인 이름이 주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에도 의미를 둔다. 부자는 그저 ‘부자’라고 불릴 뿐이다. 하나님 보다는 부에 토대를 둔 정체성을 가졌기에 재물을 잃어버리는 순간 정체감도 잃어버렸음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간단히 말해 지옥이란 그저 무한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유로이 선택한 존재를 의미한다. 마약, 알코올, 도박, 포르노그래피 중독에서 이런 과정의 축소판을 볼 수 있다. 우선, 붕괴가 일어난다.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므로 같은 쾌감을 얻으려면 더 많은 양의 중독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고립 현상이 생긴다.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점점 심하게 날 탓, 환경 탓을 하게 된다. 나날이 자기 연민과 자기물입이 깊어져서 독하면 중얼거린다. 아무도 내 맘을 몰라! 다들 나만 미워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토대로 삶을 쌓아올리면 바로 그것이 선한 것이라도 몸과 마음을 중독시켜서 중독현상을 보인다. 반드시 손에 넣어야 행복해지는 것이다. 인격해체는 더 광범위한 규모로 일어난다. 영원한 세상에서도 이 해체는 끝없이 일어난다. 고립, 부정, 망상, 자기물입이 갈수록 심해진다. 겸손함을 완전히 잃어버리던 현실과의 연결도 끊어진다. 아무도 지옥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하늘나라라는 개념 자체도 엉터리로 보이게 된다(딤펴리, 2017: 136-137).”
 민지 : 조금 어렵기는 한데 지옥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라는 거지?
 토마스 :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지어졌잖아요. 그분 앞에 있을 때에만 온전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반대로 그분을 떠나면 아까 이야기 했던 것처럼 갈수록 만족함이 없어지고 자꾸 고립되는 거지요. 자기만 불쌍하게 여기고 모든 존재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알지요?
 민지 : 그렇지! 천사와 같은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지.
 토마스 : 그런데 그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그게 지옥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못하고 빼내달라고도 말을 안하는 거예요. 벗어날 생각이 없는 거지요. 그 원인은 다른 것에 계속 돌리면서~
 민지 : 그럼 불은 뭐야?
 토마스 : 성경이 지옥에 대해 자주 쓰는 이미지가 불이잖아요. 불이 타며 어떻게 되나요?
 민지 : 제만 남지!
 토마스 : 불은 그 존재 자체를 다 분해한 후 허물어뜨리지요(딤펴리, 2017: 380).¹¹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 마음과 영혼을 봉괴시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기심과 자기몰입이 얼마나 아픔을 주고 절망을 주고, 몸과 마음을 열어볼게 하는 근심을 주고 피해망상에 가까운 생각들을 주는지 다들 알고 있지요. 죽음과 함께 끝이 아니라 영원히 그것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팁켈러, 2017: 135).

민지 : 으~ 끔찍하다.(활동 3 예시)

세 번째 활동에서는 삶의 문제와 관련된 기독교의 이야기를 전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위의 이야기처럼 질문과 대화로 풀어 연령과 성별과 개인적 수준에 맞게 전달 할 수도 있다. 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나누었던 삶과 반드시 연관이 있는 이야기여야 하며, 이 이야기가 너무 상투적이거나 늘어져서 사용자들이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4. 기독교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만나기

네 번째 활동에서는 앞에서 나누어졌던 이야기와 다시 지금의 삶의 이야기가 만날 수 있도록 진행한다. “만약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나요?”, “어떻게 대응했던 것이 더 좋은 것 같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한다면 어떤 좋은점(또는 문제점)이 생길까요?”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토마스 : 어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민지 : 내가 생각했던 지옥이랑은 좀 다른데..

토마스 : 사랑의 하나님과 지옥의 관계는 어때요?

민지 : 지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겨나는 느낌?

토마스 : 굉장히 잘 핵심을 집어내신 것 같아요.

민지 : 그래도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토마스 : 어떤 부분이지요?

민지 :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도록 내버려 두셔?

토마스 :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신 것 같아요. 료못처럼 조종 하는데로 움직이는 존재 보다는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지요.

민지 : 자유를 주셨다?

토마스 :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자유까지 아우르는 자유이지요.(팁켈러, 2017: 139). 이보다 더 긍정하실 수 있을까요?

민지 :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토마스 : C. S. Lewis라는 분은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저주받은 자들이야 말로 어떤 의미에서 최후까지 반역에 성공한 자들이라는 것,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는 것을 믿는 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혼들에게 지옥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 바람, 시기심 많은 사람이 행복을

11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술과 묘사는 모두 상징적이고 은유적이다. 이런 은유는 저마다 천국과 지옥의 일면을 드러낸다.(예를 들어 ‘불’은 해체와 파괴를 말하고 ‘어둠’은 고립을 가리킨다.) 그렇기는 해도 천국과 지옥 자체가 송두리째 ‘은유’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도리어 지극히 현실적이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체로 천국으로 올라가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이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천국과 지옥은 엄연히 현실이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 말들은 암시적이고, 은유적이며, 부분적임을 보여준다.

‘바랄’때와 같은 그 막연한 바람조차 없으리라는 말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이 선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자기 포기 영역에서는 그 첫 단계조차 밟으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요구한 무서운 자유를 영원히 누린 결과 자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자들은 영원히 순종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영원무궁토록 자유롭고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C. S. Lewis, 2017: 213).”

민지 : 끝까지 자기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드리지 못한다는 거구나.

토마스 : 보통 그런 경우의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보일까요?

민지 : 자기를 사랑하겠네.

토마스 : 그리고요?

민지 : 자꾸 다른 핑계를 대겠네.

토마스 : 그렇겠조?

민지 :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되나?

토마스 : 그래서 그분이 온갖 고통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민지 : 아! 그렇구나!

토마스 : 이제 기법써 다시 만나러 가야 하잖아요.

민지 : 아! 맞다..

토마스 :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까요?

민지 :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 기법이의 특징이 딱 지옥에 가는 사람들 특징이네.ㅋㅋ

토마스 : 그래도 너 지옥 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 하면 상처 받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민지 : 우선 너랑 나눴던 대화와 비슷하게 이야기를 나눠 봐야 할 것 같은데.. 기법이가 생각하는 지옥이라는 것이 뭔지도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데 잘 할 수 있을까?(활동 4 예시)

네 번째 활동의 핵심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앞에서 소개한 기독교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하도록 돕고, 개인적 확신과 함께 지혜로서 내면화해 가도록 돕는 것이다.

5. 살아가기

다섯 번째 활동에서는 앞에서 가진 개인적 확신과 지혜에 비추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학생들이 성경과 기독교이야기와 비전에서 만난 배움과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할지 그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토마스 : 시도해 보시려고요?

민지 : 그래.. 그런데 용기가 안 나!

토마스 : 그럼 한 번 저에게 먼저 해보실래요?

민지 : 한번 연습해 볼까?

토마스 : 네! 제가 이제부터는 기법씨가 되어 볼게요.

민지 : 기법이 저번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있잖아~ (후략)

토마스 : 좋은데요! 제가 생각해 봐도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민지 : 오! 고마워. 용기가 좀 나는데!

토마스 : 주인님은 지혜롭게 잘 하실 것 같아요.

민지 : 토마스 고마워! 오늘은 여기까지!
 토마스 : 혹시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민지 : 물론이지!
 토마스 : 특별히 좋았던 점을 이야기 해주시면 다음에 더 잘 도와 드릴 수 있는데 이야기 해주실 수
 있나요? 별점 5점 만점으로 이야기 해주셔도 돼요.
 민지 : 별점 5점!
 토마스 : 감사합니다.(활동 5 예시)

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얻도록 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교리를 배운 이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교리의 진정한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리 교육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선한 덕들을 갖추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다. 또한 이 경험이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가면 갈수록 전 지구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이 목표를 이루어내는 귀한 도구로 쓰이기를 기대해 본다.

V. 결론

이 논문에서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어떻게 기독교인의 신앙을 성장시킬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
 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방법은 교회를 통하여 신앙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이었다.
 물론 앞으로의 시대에도 이 방법은 계속 될 것이다. 성령님이 선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
 음은 있으나 교회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과 아직 믿음은 없으나
 진리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인공지능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인공지능은 '오직 성경'이
 라는 원리 가운데 목적과 내용과 방법과 평가가 그 원리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4차 산업 혁명과 인공지능 그리고 챗봇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대적 상황과 기술을 살
 펴보았다. 그리고 신앙성장을 돕는 인공지능의 제 일 원칙이 될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원리
 가운데 성경과 교리와 교회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성경과 교리가 인공지능을 통해 신앙의 성장
 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 방법론으로 토마스 그룸(Tomas H. Groome)의 '나눔의 프락시스'를 소개
 하고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았다.

토마스 그룸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 수십 년간 고민해 왔다. 이 방법의
 장점은 '삶의 경험'에서 나눔을 시작하여 그것을 치열하게 살피 기독교적 전통 곧 교리와 만나게 하고
 깊은 성찰이 일어난 것을 다시 삶으로 결단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교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교
 육적 의미를 탁월하게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보통 이 '나눔의 프락시스'가 가지는 한계점으로 지
 적되는 것은 삶의 경험에 가장 적절한 교리 곧 기독교의 가르침을 찾는 고도의 전문성을 일반 교사들
 이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인공지능은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학습
 의 한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방대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교리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전 지구적인 접속으로 인하여 신앙교육의 경험을 빠르게 가질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다. 이것
 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며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그것
 을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인공지능은 명백한 한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성령을 직접 체험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간접경험밖에 가질 수 없다는 점.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예배와
 공교회를 직접 경험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있다. 그렇기에 신앙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가운데 사용자
 들이 다시 교회로 접붙임 되도록 하는 원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사도신경)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목적은 '신앙의 성장' 내용은 '성경과 교리' 방법은 토마스 그룸의 '나눔의 프락시스' 평가는 '대화를
 통한 수행평가와 피드백 그리고 공교회로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는 이 인공지능 교리교육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올 시대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어 성경적 원리에 따라 사용자의 신앙성장을 도울 수 있기를 기
 대해 본다.

참고 문헌

- 개혁개정 성경.
 김기석(2016). "인공지능과 신학적 인간학." 『인공지능 시대 미래 기독교 교육』. 2016 한국기
 독교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김영산(1998). 『웨스터 민스터 신앙교백서 해설·강론』. 서울: 영문.
 레이 커즈와일(2007). 『특이점이 온다』. 김명남·장시형 역. 파주: 김영사.
 루이스 프삼스마(2011).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이상웅·김상래역. 서울: 복있는 사람.
 박현길(2017). "나를 읽는다 챗봇(Chatbot)!" 『마케팅』. 51.
 사도신경.
 신동규(2015. 7). "종교교육학 이론을 적용한 대학 이념 구현 방법 고찰." 『인간연구』. 29. 81.
 앤드루 라우스· 토머스 C. 오든(2008). 『교부들의 성경 주제 구약성경. 1: 창세기 1-11장』. 하
 성수역. 서울: 분도 출판사.
 오세욱(2016). "미디어로서의 봇(bot)-뉴스 챗봇에 대한 시론적 논의." 『한국언론정보학보』. 79.
 71.
 이광호(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교육의 방향." 『교사, 교육의 중심에 서다』. 좋은 교
 사 연구 실천 프로젝트 X 컨퍼런스 자료집.

이남규(2014). “교회의 교리적인 개혁-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통한 팔츠교회개혁을 중심으로.” 강의 자료집.

정하은(2016). “토마스 그룹의 교육사상에 기초한 청소년 영성교육.” 문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존 칼빈(1994). 『기독교 강요 上』. 김중흠 외 3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_____(1996). 『기독교 강요 下』. 김중흠 외 3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존 M. 프레임(2014). 『성경론』. 김진운 역. 서울: 개혁주의 신학사.

크리스토퍼 홀(1996). 『교부들과 함께 성경읽기』. 이경직·우병훈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토마스 그룹(1991).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_____(2014). 『신앙은 지속될 수 있는가』. 조영관의 2인역. 서울: 카톨릭 대학교 출판부.

팀 켈러(2017).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최중훈 역. 서울: 두란노.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단 정보화전략기획부(2010). “모바일시대를 넘어 AI시대로.” 『IT&Future Strategy』. 7. 10.

독립개신교회 교육위원회역(2017).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서울: 성약출판사.

허연(2017).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문화관 교육 연구.” 『기독교학문학회 자료집』. 34. 14-17.

현대인의 성경.

C. S. Lewis(2017). 『교통의 문제』. 이종태역. 서울: 홍성사.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912065343&type=det&re.(검색일 2017.11.21)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61>(검색일 2017.11.14)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01909030916414&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검색일 2017.10.1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oowworld&logNo=220198861839>(검색일 2017.11.28)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77109.html(검색일 2017.11.28)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79978.html#csidxca738bd0d07a5199ba f7b52a2161f2e (검색일 2017.11.2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79553&cid=40942&categoryId=32837>(검색일 2017.11.3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74506&code=61221111&cp=nv>(검색일 2017.11.30)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89264&plink=COPYPASTE&coop er=SBSNEWSEND(검색일 2017.12.2.)